

학부 한중통역교재 개발을 위한 試論

김선아*

목 차

1. 序言
2. 학부 한중통역교재 설계의 원칙
3. 학부 통역교재의 내용
 - 1) 주제와 난이도
 - 2) 통역 과정에 따른 통역훈련 반영
4. 학부 한중통역교재 구성
5. 結語

국문초록

본고는 학부 통역교육에 적합한 교재와 관련한 논의를 현황 인식, 교재 설계의 원칙, 통역 과정을 반영한 교재의 구성과 내용을 중심으로 서술했다. 국내 학부 교과과정과 학사일정, 그리고 학생의 수준 및 교수자의 여건을 고려할 때, 학습자들의 정의적 거부감 혹은 수요를 가급적 만족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본고는 우선 학부 통역교육의 목표와 내용에 대해 환기하고 교재에 담은 한중 통역교육 내용과 범위를 설정한다. 다시 통역을 수행에서 필수적인 사전 준비 훈련과 실제 통역을 수행할 경우 필요한 통역 기능 훈련을 학부 통역 수준에 맞게 교재에 적절히 반영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한다.

키워드: 통역, 통역교육, 학부, 통역자료, 통역교재, 한중통역교재

* 용인대학교 중국학과 부교수

1. 序言

국내 학부 통역교육은 대학원에서 도입된 이후 대학원의 일부 교육과정을 그대로 적용해왔다. 학부의 성격에 따라 정규 학기 동안 전적으로 통역을 교육하기도 하지만 이는 소수에 불과하며¹⁾ 대부분 일반 언어 전공 학과에서 1 학기 동안 번역과 함께 입문의 성격으로 개설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통역 현장에서 활약하는 전문 통역사를 배출하기 위한 대학원의 통역 교육은 학생들의 목표 외국어 수준이 일정 정도 검증되어 있는 상태이다. 그 기초위에 대학원 정규 과정 내에서 전문적인 통역 교육을 진행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교육 수요와 교육 목표는 전문 통역사로 사회에 진출한다는 것으로 합치된다.

그러나 학부 과정에서는 교육의 주체인 학생들의 수요는 대학원과 매우 다른 양상을 띤다. 대부분의 통역번역 대학원 재학생들이 통역사로의 사회 진출을 목표로 하지만 학부 통역 교과를 수강하는 학생 중, 졸업 후 통역사가 되거나 통역대학원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전체의 20%에 불과하다.²⁾ 또 수강생은 전공 외국어 능력이 통역을 수행할 만큼 높지 않은 학생이 대부분으로 통역 교육이 불가능한 학생도 포함되어 있다. 이와 관련해 신경애(2011:111)의 설문조사 분석결과, 60% 이상의 학부생들이 통역 교과 수강 동기가 단순 호기심, 즉 특정한 동기가 없다고 응답했다. 또 해당 수업을 통해 3분의 2 이상의 학생이 통역이 아니라 듣고 말하기 등 전공 언어 능력 향상을 희망했다. 즉 전문 통역을 위한 내용보다는 수강생들의 전공 외국어 수준에 부합여부, 관심 및 흥미 유발 여부를 제일 먼저 고려해야 한다는 응답이 과반수였다.³⁾

- 1) 학부에서 외국어 통번역 과정이 개설된 곳은 10개 대학이며 그 중 영어 전공이 7개 대학으로 영어 외의 통번역 전공은 3개 대학에 불과하다.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682584&cid=44346&categoryId=44346>) 2020년 11월 20일 '통번역학과'로 네이버 검색.
- 2) 정혜연(2008:469)은 '통역수업 수강 이유'와 관련하여 2007년 1학기에는 전체의 20%(2명)가, 2학기에는 40%(4명), 2008년 1학기에는 25%(3명)가 각각 '통번역대학원 진학'이라는 대답을 하였다고 한다.
- 3) 전문대 학생의 42%가 일본어 능력시험 JLPT 3급 이하이거나 미응시 상태, 90%에 가

이렇게 학부 통역번역 교육은 수강 동기와 희망 사항이 각각 다른 학생들의 수요를 가급적 만족시키기 위해 그 교육의 목표와 내용도 대학원과 달라지며 교수법 역시 학부 과정의 현실을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 이에 학부 통역 교육이 도입된 이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기존 연구를 통해 해결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왔다. 학부 통역교육 현황, 교육의 목표와 내용, 실제 교실에서 통역 기능을 적용한 전공 외국어 교수의 실제, 메모리와 노트테이킹 등 통역 기능 훈련의 수업에서 적용 방법, 통역 관련 수업 교강사 및 수강생에 대한 설문조사 등과 관련한 연구가 지속되어 왔다. 그러나 실제 교육의 주체인 교수자와 학생이 사용하게 되는 통역 교육 텍스트 혹은 교재에 대한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기존 연구의 일부로 학부에 적합한 교재의 개발이 시급하다고 언급은 하고 있지만 교재 출판 현황 인식, 분석 및 평가, 교재 설계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강수정(2013), 김국화(2014) 졸고(2020)에 불과하다. 또한 학부생을 대상으로 출간된 한중 통역교재는 5권 미만으로 이러한 현실은 관련 연구의 시급성을 대변한다. 본고는 기존 연구의 성과를 토대로 학부 통역 교육에 적합한 통역교재의 설계와 관련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우선 학부 통역 교육의 목표와 내용에 대해 환기하고 교재 설계에 필수적인 항목을 살펴보고 교재에 담을 한중 통역 교육 내용과 범위를 설정한다. 다시 통역 수행에 필수적인 사전 준비 훈련과 실제 통역을 수행할 경우 필요한 통역 기능 훈련을 학부 통역 수준에 맞게 교재에 적절히 반영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2. 학부 한중통역교재 설계의 원칙

학부 통역교육의 목표는 ‘통역 기능 훈련을 통해 전공 언어 실력 향상과 통

까운 학생이 스스로를 중급 및 중하급이라고 보았다. 교재의 내용과 관련하여 특히 드라마나 애니메이션이 비교적 이해가 쉽고 공감대가 높아 집중하게되어 흥미와 동기유발이 된다고 응답했다.

역에 대한 기초적 이해와 실행 능력 습득'에 두어야 할 것이다. 또 이를 기반으로 학부생들이 소화해낼 수 있는 교육 내용을 설정하고 이에 맞는 적절한 교재를 선정하거나 설계해야 한다. 한편 현재 국내에서 출판된 학부생을 위한 교재 4권과 기존 연구 중 진현(2016), Xiangdong Li(2019)의 학부 통역교육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⁴⁾

① 교재1

외국어 실력 향상, 실용적 과목 수강을 통한 활용도 제고 등. 통역 입문 과정으로 동시통역이 아닌 순차통역의 기법을 사용하는 비즈니스 통역을 가능하게 하는 것.

② 교재2

학습 후 바로 대화 통역사나 일반 번역사로 투입되거나 통번역대학원의 실전 훈련에도 도전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을 기대.

③ 교재3

대학에서 중국어 전공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적절한 실용적 목적과 학문적 깊이를 결합, 통역대학원의 전업 통역사 교육 훈련방법을 활용.

④ 교재4

비즈니스 아마추어에서 벗어나기, 품격 대화 표현과 중국인들의 관용성어와 명언을 구사하여 감동 주기.

⑤ 진현(2016)

중국어 뉴스를 정확하게 읽을 수 있다, 중국어 뉴스/기사문을 한국어로 문장구역(Sight Translation) 할 수 있다, 시사 상식을 쌓을 수 있다, note-taking을 할 수 있다, 배운 내용을 순차통역(Consecutive Interpretation) 할 수 있다.

⑥ Xiangdong Li(2019)

목표1 통역 기능 습득 : 학생들은 전문 통역사의 순차통역(B-A) 기능을 학습하고 통역사와 같이 사고하고 통역하는 방법을 습득한다.

4) 현재 단행본으로 출판된 학부생을 위한 통역 교재 4권을 분석했다. 교재4는 교육 목표에서도 볼 수 있듯이 비즈니스 실무 분야의 목적서로 분류할 수 있지만 직접 학부 통역 수업에서 교재로 활용한 경험이 있고 교육 목표와 교육내용에 학부 통역교육의 유용한 콘텐츠가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하였다. 교재3 외 교재1, 교재2, 교재4는 필자가 모두 1학기 이상, 학부 통역교재로 직접 강의한 교재이다. 이들 교재와 관련한 상세한 서지 사항과 관련 논의는 조고(2020) 참조.

목표2 지식 습득 : 학생들은 이 수업을 통해 통역의 역사와 통역의 종류에 대해 이해하고 순차통역 기능의 기초 훈련을 경험한다. 또 몇 가지 영역의 주제(경제, 교육, 건강, 과학 기술 등)와 다양한 형태의 스피치를 학습한다.

목표3 사회적 맥락(Social context)⁵⁾ : 통역 훈련에서 학생들은 사회적 맥락의 영향을 자각하게 된다. 예를 들어 학습 형태(메모리, 문장구역, 순차통역 등), 자료의 구성(완벽한 자료, 스피치 개요, 도표나 그림이 있는 ppt), 목적(기념식, 세미나, 기자회견, 협상, 미팅 등), 기능(정보 전달, 미사여구의 수사적 문체, 논설 주장) 등의 텍스트로 사회적 맥락을 파악할 수 있다.

목표4 학습환경 : 무언가를 배우거나 실행할 때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메타 인지(metacognitive knowledge)를 개발해서 자기주도 학습, 동료간 혹은 자체 평가를 증진시키며 다양한 협동학습과 자신감과 시행착오에 대한 정서적 조절 기능을 증진시킨다.

외국어 교재 설계와 관련하여 呂必松(1996:99-101)은 실용성, 커뮤니케이션 특성, 과학성, 적합성, 정보성, 흥미성의 6가지 원칙을 제시하였는데 먼저 실용적인 텍스트를 사용할 때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고 보았다. 실제 통역 현장에서 사용하는 통역 텍스트의 주제는 매우 다양하며 난이도도 천차만별이다. 만약 실제 통역 업무 텍스트를 학부 통역교육 교재로 바로 적용한다면 통역의 현장성과 실용성을 반영할 수는 있겠지만 전공 외국어 능력이 미흡한 학부 학생들에게는 커다란 심리적 부담을 가중시켜 통역에 대한 흥미를 처음부터 잃어버리기 쉽다. 그러므로 통역을 처

5) 언어 사용이 이루어지는 상황적 요인 가운데서 발화에 영향을 끼치는 대화 참여자의 나이, 지위, 성 등의 사회적 요인의 작용 및 상호 관련성을 일컫는 말. 사회적 상황이란 상황의 맥락 가운데서 사회적 요인과 관련된 요소를 말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이것은 대화 참여자의 사회적 요인과 관련된 맥락이라는 의미에서 사회적 맥락 또는 사회적 문맥이라 부르기도 한다. 사회적 상황이란 상황의 맥락 가운데서 사회적 요인과 관련된 요소를 말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이것은 대화 참여자의 사회적 요인과 관련된 맥락이라는 의미에서 사회적 맥락 또는 사회적 문맥이라 부르기도 한다. 방언연구회(2003) 참조.

음 접하게 되는 학부 통역교육에서는 교실의 현실을 반영한 교재를 설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통역 현장 텍스트의 다양성과 실제성을 학부 통역 교육에서 어떻게 반영하는 가 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Xiangdong Li(2019)은 초보 단계일수록 교실의 현실을 더 많이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는 학부 통역교재가 담아야 할 교실 현장의 원칙을 주제의 연속성(Continuity in subject matter), 단순화(Simplification), 비계(Scaffolding), 구축(Building) 및 동기 부여(Motivating)로, 실제성(Authenticity)과 다양성(Diversity)은 직업적인 통역 실무에서 요구되는 원칙이라고 보았는데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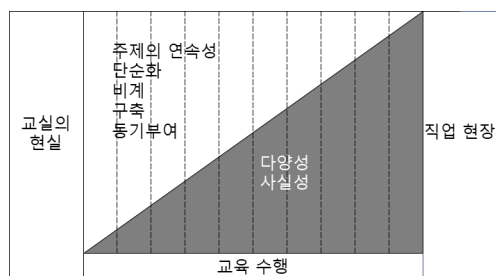


그림1) 통역 교실과 전문 통역 현장에서 필요한 원칙들

통역교육에서 대학원과 같이 이 두 현실의 거리가 가깝다면 이상적이겠지만, 학부 과정 학생 대다수는 통역 과정을 인지할 뿐 과정에 대한 분석은 불가능한 단계이다. 학생들이 ‘알고 있는’ 수준에서 통역 ‘흉내 낼 수 있는’ 혹은 ‘조금 할 수 있는’ 정도로 나아가려면 신중한 교재 선택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교재 편찬자는 교재의 콘텐츠 유형과 난이도를 조절하고 난이도가 점층되는 교육을 진행해야 한다. 과도하거나 실현 불가능한 통역 훈련으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가급적 최소화해야 한다.⁶⁾

가장 큰 문제는 학생들의 부정적인 감정으로 학습 의욕을 잃어버리는 것이

6) 王敏(2018:131) 참조.

다. 이러한 부정적 감정이 드는 요인은 첫째, 교수자의 현실과 동떨어진 목표 설정, 둘째, 학생들의 표현에 과도한 감정적 피드백으로 통역 입문 단계에서 교수자의 역할은 그 무엇보다도 더 중요하다. 학습 자체는 물론 학생의 영역이지만 교육 초반의 교수자의 역할은 수업 목표 설정부터 통역에 적절한 텍스트 및 과제 선정까지 그 폭이 넓다.

이와 관련하여 Seleskovitch와 Lederer(1989:147)는 교육 단계에 따라 교수자가 직접 시범을 하는 역할도 담당해야 한다고 보았는데 교수자가 스스로 학생이 현재 수준에서 더 높은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게 효과적인 인지적 자극 및 정보를 제시하는 ‘비계(Scaffolding)’의 역할을 해야 한다. 처음에는 학습자 혼자 할 수 없는 잠재적 발달영역이지만 교사가 학습자의 수준을 살펴 시범이나 매체를 활용해 적절한 도움을 준다. 교사는 어려운 요소들을 점차 하나씩 해결하게 지원하고 그 변화의 정도를 감안 해 도움의 정도를 조금씩 줄인다. 결국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지식을 온전히 체화해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교사는 조력자, 안내자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⁷⁾ 교수자가 조력자가 되어 학생들의 성공적인 학습 경험이 동기(Motivating)를 증가시키고 실패의 경험을 지워버리며 자기 주도적인 학습과 메타인지학습 전략을 습득할 수 있도록 이끈다. 자신감이 통역뿐만 아니라 통역 학습에도 많은 영향을 준다는 실증적인 연구도 이를 입증하고 있다.⁸⁾

이와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 교재의 주제의 연속성(continuity in subject matter), 단순화(simplification), 구축(building)의 원칙이다. 통역교육 초기에는 통역 현장에서 쓰이는 텍스트에 근접하는 사실성과 다양성보다는 텍스트의 주제를 최대한 줄이고 일관성 있게 편집하여 통역 학습에 적절한 난이도

7) 정혜연(2008:475) 재인용. 또 비계(飛階, Scaffolding)는 건축용어로 건축 현장에서 한 층 한 층 건물을 올릴 때 높은 장소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건물 외부에 철골구조물 등을 이용하여 조립해 세운 가설물을 말한다. 교육에서 스캐폴딩(scaffolding)이란 학습자가 현재의 수준을 넘어 다음 단계의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그에게 적절한 인지적 자극과 정보를 제공하여 학습을 촉진시키는 전략을 의미한다

(<https://blog.naver.com/wind0631/222006907715>, 2020년 12월29일 검색).

8) Pan and Yan(2012), Shaw and Hughes(2006), Xiangdong Li(2019:28) 재인용.

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또한 텍스트는 학생들의 수준에 맞게 자료를 단순하게 가공하거나 혹은 도움을 줄 수 있는 보충 자료를 부가적으로 제시하여 학습의 부담감을 최소화해야 한다. 즉 단순하고 쉬운 자료에서부터 출발해서 사실적이고 다양한 현실의 직업 세계 자료를 소화할 수 있는 실력을 쌓을 수 있도록 난이도의 구축(building)이 필요하다.

물론 이러한 원칙들을 반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통역 교과와 강의계획은 실제 학생들을 만나기 전에 수립된다. 그러나 일단 강의를 시작되고 나서 학생들의 수준과 맞지 않는다면 교육목표와 내용은 교재와 함께 학생 설문이나 인터뷰를 통해 변경할 수 있는 유연함을 갖추어야 한다. 이상의 논의를 근거로 다음의 학부 통역 교육의 목표에 따른 교재 개발의 원칙을 다음과 같이 도식화할 수 있다.

표1) 교육 목표와 교재 개발의 원칙

| 교육 목표에 따른 교육 원칙의 조합 | 교재 개발 원칙 | 목적(purpose) |
|---|------------------------------------|-------------|
| 목표1-3 : 통역기능과 지식습득, 사회적 맥락 파악 | 다양성 사실성 | 직업 현장 반영 |
| 목표4 학습환경 : 메타인지와 자기주도학습 및 자신감 등 정서적 조절 | 주제의 연속성 단순화 비계 구축 동기부여 | 교실 현실 반영 |

3. 학부 통역교재의 내용

1) 주제와 난이도

학생들의 전공 언어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고 균일하지 못한 학부 통역 교

육에서 난이도와 그 난이도를 결정하는 요인에 대한 분석은 매우 중요하다. 교수자 및 학습자에게 핵심적인 교재의 난이도가 학습자 수준과 부합하지 않으면 부진한 학습 결과, 좌절감, 부적응, 학습 흥미 저하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난이도 조절은 학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텍스트 난이도 분석을 위해 최문선(2012:253-254)은 통역 결과물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통역 과정에 따라 ‘입력물 변수’와 ‘통역사 변수’로 구분하였다. 다시 ‘입력물 변수’는 통역 텍스트와 관련된 부분을 ‘텍스트 내적 변수’로, 그 외 입력물의 속도, 말투, 보조 자료의 사용 등을 ‘텍스트 외적 변수’로 나누었다. 이 외에 통역사 변수는 가장 필수적인 전공 언어 능력과 배경지식 등과 같은 ‘언어 외적능력’, 기억력, 판단력, 집중력, 주의력 분배 등 ‘인지 능력’과 두 언어 간의 전이 능력, 노트 테이킹이 등의 ‘통역 기술’이 통역사 변수에 속하는데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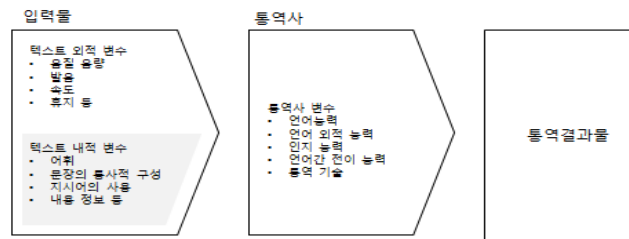


그림2) 통역 결과물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학부 통역교육에서 통역사 변수를 균일하게 설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이들 변수 중 통역사의 능력과 통역 기술은 무에서 출발한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이다. 이에 학부 통역교육에서는 입력물 변수에서 난이도를 조절하여 양질의 통역 결과물을 도출해 낼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한다. 텍스트 내적 변수와 관련하여 교수자들은 교육용 원천텍스트의 난이도를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으로 논리(22.1%), 정보 밀도(19.9%), 문장(17.4%), 주제(15.5%), 어휘(13.8%), 도작어 표현(11.4%)의 순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논리와 정보 밀도, 문장은 텍스트의 문체(style)와 연관이 있는데 통역교육 텍스트로 활용하는 일반 뉴스 기사나 설명문은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가 비교적 간단하여 쉽고 논설문, 주장문, 연설문 등은 어렵다. 그러므로 논리와 정보밀도, 문장의 난이도가 낮은 텍스트에서 점차 난이도를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 다음으로 주제는 ‘개념’과 ‘전문 용어’로 판단할 수 있다고 보기도 하는데⁹⁾ 먼저 국내의 기존 교재와 연구에서 제시한 주제들이 학부 통역교육과 부합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표2) 학부 통역교재와 기존 연구의 교육 주제

| 기존 자료 | 주제 |
|------------|---|
| 교재1 | 국제 회의 관련(1-5과), 국빈 방문, 뉴스와 신문, 경제, 기후와 일기 예보, 국제 행사, 스포츠, 법과 범죄 12가지 주제 |
| 교재2 | 한국인의 성격, 사계절, 출산율, 인구조사, 경제성장, 경제정책, 외교, 국제 행사, 미디어와 통신, 연설문, 소개문, 문화 차이. |
| 교재3 | 가이드 인사말과 기자회견, 인터뷰, 유명 연설문, 매매 및 무역거래 대화 통역. |
| 교재4 | 공항 송영, 일정 및 숙소 소개, 비즈니스, 프리젠테이션, 그래프 및 차트 설명, Q&A 표현, 인사말 및 연회 진행 멘트, 중국어 명언. |
| 김란미 (2011) | 편지, 카드, 자기소개서, 시, 기사문, 설명문, 건의문, 요약문, 주장문, 감상문, 생활문, 이야기, 인터뷰, 사자성어나 속담 등 |
| 진 현 (2016) | 1주-6주(뉴스): 남북교류 러시아와 맥도날드, 미래주택, 외모 차별, 위안부 소녀상, 먹방, 한중일FTA, 에어아시아 추락, 사물인터넷, 존엄사, 유가족락, 위안화 직거래 등 7주-14주(연설문) : 시진핑 주석, 리커치양 총리, 왕이 부장 축사, 연설 |

교재1은 통역번역대학원의 교육 내용과 가장 근접한 주제로 회의통역, 정상회담, 연설, 시사 뉴스 원고가 주 텍스트이다. 교재2는 통역 기본편인 교재1의 후속 교재로 실전편으로 출간된 것인데 ‘한국인의 성격, 사계절, 소개문, 문화 차이’ 등의 학생들에게 친숙한 주제가 많다. 교재3의 경우, 회의통역 연

9) 최문선(2013:266) 참조.

설문도 포함했지만 대담, 인터뷰, 비즈니스 관련 텍스트가 있어 취업 현장에서의 통역 실전에 유용하다고 본다. 김란미(2011:8)는 학부 통역교육에 적절한 교재 개발이 시급하며 졸업 후 직장에서 실제로 통역 상황에 처할 경우 필요한 내용의 문장들을 수업 텍스트 주제로 제시하고 있다. 진현(2016:415)은 내용 구성이 단순한 텍스트에서 복잡한 텍스트로, 즉 수업 초기에는 객관적 사실을 나열하는 스트레이트 뉴스를 활용하고 수업 후반에는 콘텐츠가 많고 구조가 복잡한 실제 연설문으로 교육하고 있다.

이상의 기존 주제들은 통역 교육에서 모두 주요한 항목으로 교재 설계에 있어서 이 범위에서 취사선택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 교재와 연구에서 제시된 주제들을 일반 언어 전공 학부에서 1학기 각 15주 동안 모두 소화하기에는 큰 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주제량을 10개 정도로 대폭 줄여 학생들의 진도 및 학습 분량에 대한 부담감을 낮춰야 할 것이다. 또한 주제 역시 친숙하고 현실적인 분야로 집중시켜야 한다.

모국어에 필적하는 높은 전공 외국어 실력을 구비하고 통역번역대학원 진학 수준의 통역 실력을 갖추지 않는 이상, 학부 졸업생이 국제회의 혹은 유명 인사의 연설을 통역할 기회는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다시 말해 학부 통역교육에 적절한 교재의 내용, 주제를 선정하는 데에는 학생들의 현황과 졸업 후 진로 방향을 현실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전공 외국어를 쓸 수 있는 분야에 취업한다면 교재4의 경우와 같은 상황을 마주할 가능성이 더 높다. 즉 거래 기업에 무역 서신이나 전화, 소속 기업의 상품 홍보나 계약을 위한 출장, ppt로 상품 소개, 상품 가격 협상 등 비즈니스 미팅 등 분야에서 통역할 기회가 더 많을 것이다. 이와 함께 대학생들이 관심을 가지는 주제 청년들의 취업과 미래, 자기 소개, 한중 문화비교 등의 주제를 학습 초기에 배치한다. 다음으로 실제 취업 현장의 수요에 따른 비즈니스 관련 한국 홍보, 비즈니스 미팅(양측 인사, 소속 기업 및 상품 소개, 가격 협상), 그래프나 차트 설명을 포함한 프리젠테이션 통역 훈련에 이어 인터뷰, 연설문 등 주제의 통역 현장의 실제성과 다양성을 반영한 텍스트를 교재에 수록해야 할 것이다.

2) 통역 과정에 따른 통역훈련 반영

학부 통역 교육에서 적절한 교재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주제 선정과 함께 통역 기능 훈련을 위한 세부 항목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이를 교재 속에서 구현해야 한다. 학부에서 통역 기능 훈련의 범위는 순차통역으로 그 세부 기능 항목은 ‘이해 → 분석 → 표현’의 통역 기능 체계를 통해 선정할 수 있다. 입력물, 즉 통역 정보를 듣고 기억하며 기록하는 ‘이해’ 단계에서 시작해서 텍스트의 담화 논리, 문화 간의 의미를 해석하는 ‘분석’ 단계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출발어에서 도착어로 언어 전환, 통역 수행 매너와 숫자 표현의 기술 등 ‘표현’ 단계로 나뉜다.¹⁰⁾ 이와 관련하여 齊滄云(2017:119)은 통역 기능을 거시, 미시 또 그 중간 단계의 중시, 3단계로 나누었다. 거시 단계는 ‘통역 전 준비’, ‘통역 중 대응’, ‘통역 후 평가’로 분류했다. 중시 단계의 ‘통역 중 대응’은 ‘듣고 분석하기, 메모리, 노트 테이킹, 표현(Output)’, 미시 단계 ‘통역 표현(Output)’에서는 출발어와 도착어 두 언어의 전환 기술, 예를 들어 숫자, 긴 문장 처리, 단어 선택 등의 기술적 문제로 다음과 나누었는데 본고는 이에 따라 훈련 내용을 기술한다.¹¹⁾

10) 王敏(2018:129-132) 참조.

11) 趙浩(2020) 재인용. 본고에서는 ‘통역 후 평가’에 대한 논의는 지면관계 상 포함하지 않았다. 교수자의 평가(간단한 코멘트, 수시평가, 중간 및 기말고사 등 포함), 학생간의 평가, 학생 스스로의 평가로 나뉠 수 있는데 이를 교재에 반영하는 방법과 관련해서는 후속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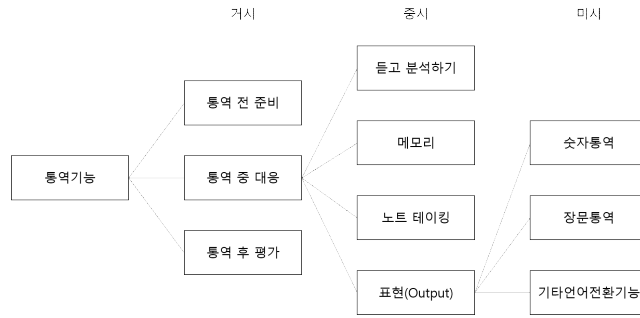


그림3) 통역 기능 체계

(1) 통역 전 준비

학부 통역교육은 대학원과 달리 언어교육과 통역교육을 병행해야하므로 교재에서 언어 교육에 일정 정도 비중을 두어야 한다. 특히 통역을 위한 전공 언어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학부생을 통역의 경험을 성공적으로 체험하게 하려면 미리 충분한 연습을 통해 통역사와 같이 전공 언어 능력을 갖추고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실제 통역 연습을 위한 사전 준비는 학부 교육에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기존 교재의 사전 준비 부분은 대체로 단어 설명과 각 과의 도입부에 주제와 관련한 짧은 제시문만 제공하고 있는데 학부생에게는 세밀하고 정교한 사전 준비가 제공되어야 한다. 각 단원의 새로운 단어나 관용 표현은 단순 대응의 사전적 의미뿐만 아니라 개별 의미 항목과 충분한 예문, 그리고 사회적 의미, 역사적 유래도 자세히 소개하고 설명해야 한다. 예를 들어 동사를 설명할 때, ‘동사+ 목적어’의 조합(动宾搭配)도 함께 제시해 유창한 도착어 표현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각 과의 주제와 관련한 충분한 브레인 스토밍 자료를 교재에 수록해야 한다. 주제의 개요를 담은 한국어 자료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토론을 유도하면서 관련 어휘를 미리 숙지하게 하여 학생들의 부담을 최소화한다.

사전 준비, 특히 언어 능력 향상에 소요되는 시간은 개별 학생들의 전공 언어 수준에 따라 다르기때문에 제한된 수업 시간 내에 소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러므로 개개인의 수준에 따라 단어, 표현, 문장구조에 따라 스스로 연습하도록 하고 또 수강생 간의 그룹 스터디를 통해 철저한 준비가 이루어지도록 독려해야 한다.

(2) 통역 중 대응

① 듣고 분석하기

한국어나 중국어를 듣고 되풀이하는 표현 바꾸기(패러프레이징) 혹은 디토글로스(dictogloss) 훈련을 하게 되면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문맥의 논리적 흐름을 파악하게 되며 협동 학습을 통해 통역에 대한 정의적 거부감을 줄일 수 있다. 먼저 표현 바꾸기는 ‘유사한, 근접한 (para-)’이라는 의미의 그리스 어원 접두사에 ‘표현(하기)(phrase)’라는 단어가 합쳐진 어휘로, 외국어 교육에서는 문장, 텍스트를 같은 언어의 다른 어휘, 문법으로 표현하는 행위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해 왔다. 이들은 첫째, 한 가지 표현을 같은 언어의 다른 표현으로 바꾼다. 둘째, 의미는 되도록 보존한다는 특성을 지니는데 한국어를 한국어로, 중국어를 중국어로 연습한다.¹²⁾

또한 디토글로스는 주제에 관한 배경 지식을 활성화하고 어휘를 학습하는 ‘활동 준비’ 단계, 이어서 교사가 정상적인 속도로 읽어주는 지문을 메모하는 ‘받아쓰기’ 단계, 다음으로 3-4명으로 이루어진 소규모 조별 활동을 통해 재구성한 지문을 비교하여 오류를 찾아내고 수정하는 ‘재구성’ 단계, 끝으로 원본과 비교 및 대조를 통한 교정과 피드백을 하는 ‘분석 및 교정’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¹³⁾. 이 과정은 통역 수행 과정과 매우 유사하지만 디토글로스의 결

12) 정혜연(2008: 229-230) 참조. 표현바꾸기(paraphrase)와 통역의 유사성

13) 박미향·김영주(2017:321-322) 참조.

과물을 개인이 아니라 그룹별 협동 학습을 통해 서로의 결함을 보완하고 개선하여 산출하기 때문에 자신감과 집중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교재에서 주제와 관련된 짧은 단문의 표현 바꾸기와 디토클로스 텍스트를 설계해서 본격적인 메모리, 노트테이킹, 표현에 앞서 관련 주제에 대한 노출을 계속 반복하고 의미화 훈련을 위한 듣고 분석하기를 훈련을 편성하는 것이 적절하다.

② 메모리

메모리 훈련은 원문의 텍스트를 그대로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기억하는 것으로 처음 훈련을 하게 되면 학생들은 당혹스러워 하기 쉽다. 그러나 통역이 의미의 해석을 통해 ‘언어’라는 껍질을 버리고 ‘의미’를 도출하는 ‘탈언어화(deverbalization)’ 과정이라는 것을 체험하기 위해 학부 통역과정에서 메모리 훈련은 관건적인 역할을 한다. 초기에는 한 두 문장의 메모리 훈련에서 시작하여 점차 분량을 늘려나가면서 메모리의 훈련 방식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즉 가시적(visualizing)인 메모리 훈련으로 의미를 이미지화 할 수 있도록 하고, 윤곽(outlining) 메모리 훈련을 통해 다소 긴 텍스트의 대주제와 하위 주제의 구분하고 연계한다, 또 서로 다른 정보의 연관성을 찾아 큰 정보를 만들어 나가는 추론(reasoning) 메모리, 키워드로 텍스트의 논리적 연계를 형성하는 키워드(keywords) 메모리 훈련 방법을 교재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¹⁴⁾

③ 노트 테이킹

노트 테이킹은 원문을 그대로 받아쓰기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맥락을 정리하고 많은 양의 정보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기억의 보조 수단이다. 일반적으로 순차 통역 교육에서 노트 테이킹을 필수 기능으로 인식하며 거의 모든 통역교재에서 노트 테이킹 훈련을 수록하고 있다. 그러나 통역 입문 단계의 학부 학생들은 노트 테이킹을 단어 차원의 단편적 기억, 전통적 독해 방식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아 초기 단계에서는 노트 테이킹 훈련을 하

14) 廖全(2009:12) 참조.

지 말아야한다고 보고 있다. 즉 문장 분석과 메모리 기능이 숙달된 이후 체계적인 노트 테이킹 훈련을 해야한다는 것이다. 실제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노트 테이킹을 소개하고 나면 이 자체가 통역 입문자들에게 스트레스가 되는 현상이 나타난다.¹⁵⁾ 노트 테이킹 자체의 기법 습득, 자신만의 노트 테이킹 부호 만들기 등에 집착한 나머지 의미화, 탈언어화를 통한 통역 수행 연습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메모리를 훈련의 주축으로 하고 숙달되기 전까지는 노트 테이킹 훈련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④ 표현

학부 통역교재는 도착어 텍스트가 출발어 텍스트의 의미를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모델을 제시해야 한다. 현행 통역교재 대부분은 각 과의 마지막 단원에 실전 훈련 텍스트 원문만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통역 결과물 즉 도착어 텍스트는 제시하지 않고 있어 적절한 표현 훈련이 어렵다. 즉 교재에서 재표현의 모범 모델을 제시하여 학생들이 단어 대 단어의 치환이 통역이라는 인식을 불식시키도록 해야 한다. 즉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얻는 전략, 단순화 전략 등의 모델을 제시해 통역은 의미의 전달과정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해야 한다.

예를 들어 텍스트의 수치 중 ‘72%’를 기억하지 못했다고 해도 이를 ‘과반의’으로, 장황한 자기 소개, “000씨는 00대학을 졸업하셨으며, 000기관에 00를 맡으며 000분야의 최고의 권위자가 되었으며 저서로는 0000000가 있습니다”를 “현재 연사 소개하고 있습니다”로, “W, X, Y, Z가 원인이라고 하는데 Z에 대한 견해는 무엇입니까?”를 “Z에 대한 의견을 말해주십시오”로, 프로그램 변경, 외국인 이름, 회의실 변경, 시간, 제목 등의 변경 등 안내받을 수 있는 다른 소스가 있을 경우에 “변경사항은 안내 데스크에 문의해주세요”로 줄이는 것이 그것이다. 이는 원문의 내용을 무시하고 통역하지 않는 무책임한 행위가 아니라 불필요한 정보를 과감하게 버리고 연사나 청중의 시간을 낭비

15) 강수정(2019), Robert Neal Baxter(2013) 참조.

하지 않도록 정확한 대답을 할 수 있게 질문을 정확히 통역하는 책임있는 행위이다. 또한 학생 자신이 통역 현장에서 자신의 한계와 가능성의 범위를 파악하고 결정하게 하는 것이다. 즉 통역을 하도록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통역 사같이 사고하고 생각할 것을 교육’하는 내용을 교재에 반영해야 한다.¹⁶⁾

4. 학부 한중통역교재 구성

전체 교재는 도입과 통역, 두 개의 장으로 나누고 제1장 도입에서는 통역 이론 전반을 개괄한다. 또 실제 통역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통역 유형론(강지혜, 2004), 통역사 역할론(고영민, 2005), 통역 기능 이론(Matyssek, 1989, Seleskovitch & Lederer, 1989), 해석이론 등을 소개한다. 또 통역 수행 과정, 수행 전 준비, 현장에 대한 이해 등 기초 지식과 통역사가 되기 위한 준비, 통역대학원 진학 안내, 입학 시험 정보, 학습 방법, 실제 통번역사들의 경험담을 신는다.¹⁷⁾ 이 1장을 학기 초 1-3주 동안 제2장의 통역 부분 1-3과 강의와 병행한다.

제2장은 실제 통역수업을 위한 10개 과로 나누고 각 과는 사전 준비, 통역 기능 훈련, 통역 실전, 연습의 네 개의 단원으로 구성 한다. 제1단원 사전 준비로 배경지식소개와 단어 및 문형 훈련이며, 제2단원은 듣고 말하기 훈련, 메모리 훈련, 노트테이킹 연습이다. 제3단원 실전 텍스트를 통한 통역 연습, 4 단원의 연습에서는 해당 주제의 한국어, 중국어의추가 텍스트로 단어 축적과 전형적인 문형의 언어 전환을 하도록 한다.

다시 각 과의 제1단원은 주제와 관련된 사전지식 및 전문 용어, 한국어와 중국어 대비 및 전환 훈련에 비중을 둔다. 예를 들어 ‘平台’라는 단어를 설명할 때 사전적 의미와 발음 병기는 필수이며 예문을 통해 상황에 따른 적절한 한국어 대응어를 제시해야 한다. 즉 “雨季到来之前, 最好先加固平台(장마철

16) Baxter(2010:40) 참고.

17) 정혜연(2008:47), 김란미(2005:05) 참조.

전에 축대를 튼튼히 쌓아 두는 것이 좋겠다)의 경우에는 ‘건조대, 축대, 데라스’의 구체적 사물의 의미로 “他们的福利待遇都在一个平台上(그들의 복지 수준은 모두 동일하다)”의 ‘수준, 정도’, “一家青年团体举办了一场与青少年对话的平台(한 청년 단체에서 청소년들과 대화 광장을 마련했다)”의 ‘광장, 기회, 장소, 수단, 플랫폼’이 그것이다. 또 중국어로 일반 대화는 가능하지만 격식을 차려야하는 공적인 상황의 관용적 표현을 문장 차원에서 소개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비즈니스 미팅 차 방문한 중국 고객의 환영 멘트를 다양한 형태로 수록한다. 즉 “000님의 00회의 참석을 환영합니다”, “00회의 참석차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한국 000투자 설명회에 참석해주신 한중 귀빈들을 환영합니다”를 “欢迎000先生参加00会议”, “热烈欢迎参加000会议的各位嘉宾莅林”, “欢迎出席韩国000招商引资大会的中韩嘉宾”와 대조제시한다. 제2단원의 통역 기능 훈련은 3개의 세부 단원으로 나누어 먼저 패러프레이징과 디토클로스 기법을 활용한 듣고 말하기 훈련으로 안배한다. 이때 텍스트는 한국어, 중국어의 2개로 중국어는 주제와 연관성이 있는 HSK5-6급 정도 난이도의 5-10줄 분량의 지문 2-3개를 활용한다. 또 통역 훈련의 방향은 중국어→한국어가 위주이며 수업 후반으로 갈수록 한국어→중국어의 비율을 점차 늘인다. 구체적으로 중간 고사 이전에는 제1단원, 제2단원, 제3단원의 중국어→한국어 부분의 분량을 과반으로 설정한다. 이후에는 중국어→한국어, 한국어→중국어 통역 텍스트를 절반 정도로 배치한다.

기존 교재에서는 중국어→한국어, 한국어→중국어 방향의 텍스트를 2개씩 4개를 제시하고 있는데 실제 수업을 하게 되면 다 소화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이에 제3단원에서는 중국어→한국어 통역 텍스트 1개만 실고 ‘역(逆)통역’ 훈련을 하면 분량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역번역(Back Teanslation)’은 번역문을 원래의 텍스트 언어로 번역하는 것인데, 원문 텍스트의 전공 언어로의 번역문을 재번역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통역에 적용한 역통역 훈련은 한국어→중국어 통역에서 어휘 선택의 부담감을 줄이고 그 결과물을 원문 텍스트와 비교하면서 실수를 최소화하고 중국어 능력을 배양할 수 있을 것이다.¹⁸⁾

제4단원의 연습 부분의 텍스트는 학습 내용의 반복적인 노출을 기반으로 하고 사전 준비와 통역기능 훈련을 통해 익숙해진 주제로 학생 발표, 소그룹 훈련 및 모의통역 회의 방식을 도입한다. 이와 함께 학습 보조 자료를 세밀하게 반영해야 한다. 대부분 기존 교재에 보조 자료로 텍스트의 음성 파일을 수록하고 있지만 영상 자료나 상황별 훈련 자료는 부족하다. 학생들이 교실에서 풍부하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어야 학습 흥미와 적극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통역 사례 및 통역 자료의 통역 현장 녹화 클립을 감상할 수 있으면 더 효과적이다.

이상의 실제 교재 설계 시 반영한 구조와 내용은 2장의 학부 한중통역교재 설계의 원칙과 연계하여 다음 표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먼저 주제의 연속성(Continuity in subject matter) 원칙으로 학부 한중통역교재에서 필수적인 주제를 일관성있게 다루고자 했다. 다음으로는 학부 수준의 난이도로 단순화(Simplification)하고 쉬운 것에서 어려운 것으로의 교재내용 구축(Building)의 원칙을 반영했다. 그리고 학생들이 스스로 실력 향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비계(Scaffolding) 및 동기 부여(Motivating)의 원칙에 입각해 동기부여와 흥미유발을 할 수 있는 청년들의 미래, 그리고 실제 졸업 후 바로 현장에서 쓰이는 비즈니스 실 담았다. 또 통역 훈련이 어느 정도 숙달되는 중간고사 이후부터 기말고사 이전까지의 교재에는 실제성(Authenticity)과 다양성(Diversity)의 원칙을 적용한 회의통역 자료와 연설문을 포함하였다.

18) 이지연(2010:02) 참조.

표3) 학부 한중통역교재의 구성과 내용

| 목차 | | 내용 | | | |
|----------|-----------------------------------|---------------------|-----------------|------------------|------------------------|
| 1장 도입 | 통역이론(1) | 통역의 역사와 학문적 배경 | | | |
| | 통역이론(2) | 통역의 유형과 통역 이론 | | | |
| | 통역사란? | 진로 지도 | | | |
| 2장 통역 | 주 제 | 1. 사전지식 | 2. 통역기능 | 3. 통역수행 | 4. 연 습 |
| | 제1과 청년들의 미래 | 관련 표현 | 한중 취업 결혼 | 한중 취업, 결혼 통계 | 메모리, 숫자처리 |
| | 제2과 한중문화 비교 | 한중문화표 현비교 | 의식주 관련 텍스트 | 한중 문화 차이 | 메모리, 속담, 사자성어 |
| | 제3과 응용문(자기소 개서, 이메일, 전화) | 응용문 어휘 및 표현 | 응용문 정보 처리 | 자기소개, 전화 | 메모리, 노트테이킹, 자기소개 |
| | 제4과 비즈니스 미팅(1) | 관련 표현 | 일정 및 숙소 공항영송 | 대표 인사말, 회사 소개 | 메모리, 노트테이킹 |
| | 제5과 비즈니스 미팅(2) | 회사 및 상품 소개표현 | 소개문의 구성 | 도표, 그래프 통역 | 메모리, 노트테이킹 제품설명 |
| | 제6과 비즈니스 미팅(3) | 가격 협상, 수주 표현 | 무역 거래 | 대화 통역 | 노트테이킹, 협상 노하우 |
| | 제7과 회의 통역(1) | 회의 사회멘트 | 한중무역현황 | 경제현황 브리핑 | 노트테이킹, 경제교류 |
| | 제8과 회의 통역(2) | 본격적인 회의 관련 표현 | 한중외교현황 | 국빈방문 | 노트테이킹, 북한문제 |
| | 제9과 연설문(1) | 연설문 표현(1) | 한중 사회교류현황 | 한중문화 (한류) | 노트 테이킹 교육비교 |
| | 제10과 연설문(2) | 연설문 표현(2) | UN연설1 (중국어) | UN연설2 (한국어) | 노트테이킹 계절 표현 |

5. 結語

본고는 학부 통역교육에 적합한 교재와 관련한 논의를 현황 인식, 교재 설계의 원칙, 통역 과정을 반영한 교재의 구성과 내용을 중심으로 서술했다. 통역 수행에 필요한 언어 지식을 갖추지 못한 학부생들에게 통역의 임무나 활동을 부여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 또 국내 학부 교과과정과 학사일정, 그리고 학생의 수준 및 교수자의 여건을 감안할 때 학습자들의 정의적 거부감 혹은 수요를 가급적 만족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 노력 중에는 학기마다 달라지는 학부생들의 수준을 반영한 교안 및 교수법 개발 등도 중요하지만 학기 중 일관되게 활용할 수 있는 학부생 눈높이에 맞는 정형화된 교재 개발이 더 시급하다고 본다. 좋은 교재는 학습자들에게 전공 언어를 해석해서 기능을 파악하고 조합해서 다시 쓰이는 법을 체험하고 활용할 분석과 활용 기회의 틀을 제공한다. 이를 위해 교재의 수요자인 학부생들의 전공 언어 수준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된다. 학부생들이 소화 가능한 주제와 내용 및 분량의 교재를 철저한 사전 준비, 반복과 훈련을 거쳐 전공 언어 실력과 기초 통역 실력을 쌓을 수 있는 교재를 설계, 개발해야 한다.

參考文獻

- 강수정, 「학부통역교육에서 탈언어화 적용에 관한 연구」, 『中國學研究』, 중국학연구회, 2019.
- 곽중철·홍설영, 「통번역대학원의 통역 수업 모형 : 협력2학습 중심의 영한 순차통역 강의 연구」, 『통번역학연구』 16(2),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연구소, 2012.
- 김국화, 「한중/중한 통역교재 설계방안 - 중국대학 강의용 교재를 중심으로」, 『한중인문학연구』 제42집, 한중인문학회, 2014.
- 김난미, 『통역 번역 핵심 가이드북』, 서울:현학사, 2005.
- _____, 「학부과정에서의 중국어통번역수업:현황과 방법」, 『통역과 번역』 13(1), 한국통역번역학회, 2011.
- 김선아, 「학부 한중통역 교재 분석」, 『통번역교육연구』 18(4), 한국통역번역교육학회, 2020.
- 박미향·김영주, 「딕토새도잉, 딕토글로스, 새도잉이 L2 듣기 능력 향상에 미치는 효과」, 『동악어문학』 71, 동악어문학회, 2017.
- 방언연구회, 『방언학사전』, 서울:대학사, 2001.
- 신경애, 「학습자의 니즈 중심의 통역교육 - 대학의 통역교육 현황 분석을 토대로」, 『일어일문학연구』 76(1), 일어일문학회, 2011.
- 이미경, 「한국의 중국어교재 분포와 개발현황 분석」, 『중국어교육과연구』 (28), 중국어교육학회, 2018.
- 이주리아, 「학부 일어통역 수업에 대한 소고 - 텍스트 선정 및 수업 운영 사례 제안」, 『日本語教育』 73, 일본어교육학회, 2015.
- 이지연, 「역(逆)번역을 통한 한영번역의 훈련과 평가」, 『번역학연구』 11(2), 한국번역학회, 2010.
- 정혜연, 「통번역 분야 변화에 따른 학부통번역 교육의 새 방향」, 『Foreign Languages Education』 15(1), 한국외국어교육학회, 2008.
- 진 현, 「중→한 순차통역 교수 모형 설계 : 블렌디드 러닝을 중심으로」, 『중

- 국어문학』 73권, 중국어문학회, 2016.
- 최문선, 「통역 교육에서의 난이도와 난이도 요인 —통역 교육 전문가 조사를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제13권5호, 한국번역학회, 2012.
- _____, 「통역 교육에서 출발텍스트 선정과 난이도 고려에 한 소고」, 『통역과 번역』 15(2), 한국통번역학회, 2013.
- Robert Neal Baxter, 「A Simplified Multi-model Approach to Preparatory Training in Consecutive Interpreting」, 『The Interpreter and Translator Trainer』, 2013.
- Xiangdong Li, 「Material development principles in undergraduate translator and interpreter training: balancing between professional realism and classroom realism」, 『The Interpreter and Translator Trainer』, 2019.
- 廖 全, 「评现行三套口译教材—试建口译教材评价表」, 华中科技大学硕士学位论文, 2009.
- 吕必松, 『对外汉语教学概论(讲义)』, 北京:北京语言学院出版社, 1996.
- 齐涛云, 「技能驱动型口译教材编写原则刍议—以『口译实训』为案例」, 『西安文理学院学报』 20(1), 2017.
- 王 敏, 「口译认知理论在基础口译教材编写中的应用」, 『滁州学院学报』 04期, 2018.

Abstract

A Brief Study on the Development of Korean-Chinese Interpretation Textbooks

Kim, Seon Ah

In order to satisfy the demand of students with different motivations and wishes for undergraduate interpretation education, the goals and contents of the education will be different from graduate schools, and the teaching method should also reflect the reality of the undergraduate course as much as possible.

Based on the achievements of existing research, this paper intends to conduct discussions related to the design of interpretation textbooks suitable for undergraduate interpretation education.

First of all, we will look at the goals and contents of undergraduate interpretation education and set the contents and scope of Korean-Chinese interpretation education in textbooks. And then discuss the appropriately reflection of necessary pre-prepared training in translation education and necessary interpretation functional training in the textbooks to the level of undergraduate interpretation.

Key words : interpretation, interpretation education, graduate school, interpretation materials, interpretation education in textbook, Korean-Chinese interpretation education

투 고 일 : 2021. 1. 10. / 심 사 일 : 2021. 1. 15. ~ 2021. 2. 15. / 게재확정일 : 2021. 2. 20.